

지역노동시장은 존재하는가?

박진희*

I 지역 노동시장

최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지역노동시장,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역 혁신사업 등 지역단위정책들이 부상하고 있다. 전국단위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 성과에서 지역간 편차를 야기하는 경향을 가지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단위정책들은 명확한 사업주체와 예산집행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행정구역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지역과 노동시장 기능성을 기준으로 한 지역은 일치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이들이 일치하지 않는데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지역을 노동정책 실행단위로 삼는다면, 정책입안단계에서 이미 한계를 내포하는 셈이며 이에 따라 정책기대효과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이는 유효한 노동시장으로서 의미를 갖는 ‘지역’이라는 경계가 어디에 있는가,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단위로 차별화된 “지역노동시장이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에 답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양극단은 지역간 노동이동이 매우 활발하므로 지역단위 노동시장이 의미가 없다는 지역부정가설(negative hypothesis on regionality)과 지역간 경제력 편차와 상이한 노동수요 구조 때문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노동시장 구조가 조성된다는 지역긍정가설(positive hypothesis on regionality)로 나타날 것이다.

노동시장은 공급자(구직자)와 수요자(구인자) 사이에 노동력 서비스에 대한 거래(exchange of labor)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따라서 지역노동시장은 노동력 서비스에 대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parkjh@kli.re.kr).

한 거래가 실질적이고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지역단위의 노동시장을 의미할 것이다. 문제는 유효한 지역노동시장을 구분하는 경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있다.

OECD(2002)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에서 노동력 서비스에 대한 거래가 형성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지역’을 파악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노동시장이 동질적이며, 노동력 서비스에 대한 거래가 사업체 소재지를 중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거리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초로 지역을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통근권역(travel-to-work area), 프랑스의 고용구역(Employment zone), 미국의 경제권역(Economic area) 등이 그 예이다.¹⁾

본 연구 역시 통근분석을 기초로 실질적이고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지역노동시장을 설정하려 한다. 즉 일정 지역에서 거주자 대부분이 지역 내에서 취업하고 동시에 이 지역 사업체도 주로 지역내 거주자를 고용할 때, 이 지역을 하나의 지역노동시장으로 간주한다.

II. 지역노동시장의 경계

1. 몇 가지 정의

지역 r 에서 노동수요 자급비율(labor demand self-containment)을 표현하는 HSC는

$$HSC = \frac{(E_r - O_r)}{(E_r - O_r) + I_r} \times 100$$

로 정의되는데, I_r 은 유입통근자, O_r 은 유출통근자, E_r 은 거주자 중 취업자이다.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 중 동일지역 거주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 지표는 높아진다.

한편, 노동공급 자급비율(labor supply self-containment)인 ESC는

1) 영국의 통근권역은 3,500명 이상의 경제활동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75%(2만명 이상의 경제활동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70%)가 해당지역 내에 소재하는 사업체에 출퇴근하는 통근구역을 하나의 지역노동시장으로 판단한다. 프랑스도 동일하게 일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다수 그 지역 내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며, 해당지역 내에 있는 사업체가 대부분 그 지역의 주민을 고용하고 있으면 하나의 지역노동시장으로 간주한다. 미국의 경우도 통근패턴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도시 지역 등과 경제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제권역을 설정하여 지역별 분석을 하고 있다.

$$ESC = \frac{(E_r - O_r)}{E_r} \times 100$$

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일정 지역에 거주 취업자 중 지역 내에 취업비율을 나타낸다.

또한 지역 기능을 주거지역과 노동지역만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HWR 지표

$$HWR = \frac{(I_r - O_r)}{E_r} \times 100$$

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지표가 양(+)이면 그 지역은 노동지역이며, 음(-)이면 주거지역이다.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별 통근유출입을 살펴본 후 지역의 유출입이 높은 시/군/구를 추출하여 그 지역의 통근유출입이 높은 지역과 통합해 가는 과정을 반복하여 지역노동시장의 경계를 설정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내 통근유출입을 나타내는 노동공급 지급비율과 노동수요 지급비율이 75%를 초과하면 그 지역은 단일노동시장으로 간주한다.²⁾

2. 분석대상

지역노동시장 경계설정 분석을 위해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10% 표본자료를 이용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을 주기로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 가구의 인적특성 및 경제활동 상황, 통근·통학여부 및 장소, 1년 및 5년 전 거주지 등을 조사하는 정부공식통계이다. 본고에서는 이 자료(883,319명) 중 통근하고 있는 취업자(361,914명)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취업자 중 거주지역 읍/면/동, 거주지역 시/군/구, 거주지역외 시/군/구 등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336,827명이었다³⁾.

- 2) 영국의 지역노동시장 경계기준은 75% 이상 통근유출입 비율 이외에 경제활동인구 3,500명 이상을 지역노동시장의 최소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시도 단위에서만 경제활동인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로 사용된 인구주택총조사 중 통근인구를 그 기준으로 삼았으며,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3500명의 최소규모 기준을 상회하였다.
- 3) 이 자료에는 통근·통학에 관한 조사가 혼재되어 있어 취업자이면서 통학을 하는 경우는 통학하는 지역인지, 통근하는 지역인지가 불분명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취업자이면서 통학을 하는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지역노동시장 경계변별

통근유출입을 이용한 지역노동시장 경계설정에서 분석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번째 단계는 자료가 제공하는 행정구역상 최소단위인 시/군/구(238개)를 분석단위로 통근유출입행렬(A)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행렬의 요소(a_{ij})는 지역 i 거주자가 지역 j 로 매일 통근하는 취업자를 나타낸다.

두번째 단계는 지역별 통근유출입 비율을 산출한 후 지역내 통근유출입 비율(ESC와 HSC)이 각각 75% 이상인 지역을 변별한다. 이러한 지역은 대부분 지역 거주자가 해당

〈표 1〉 시/군/구 단위 지역노동시장

광역 시도	시군구	HSC	ESC	광역 시도	시군구	HSC	ESC	광역 시도	시군구	HSC	ESC	광역 시도	시군구	HSC	ESC							
인천	강화군	88.2	92.6	충청	진천군	81.8	88.7	전라	목포시	91.9	83.6	경상	영양군	94.9	98.6							
	옹진군	92.0	100.0		북	괴산군	88.8		96.1	여주시	96.0		97.7	영덕군	92.6	96.1						
울산	동 구	75.0	82.1	도	음성군	79.0	94.7		남	순천시	91.4		83.0	북	청도군	93.5	95.4					
	평택시	80.1	83.4		도	단양군	89.7			94.5	나주시		80.4		91.4	고령군	78.2	88.6				
경기	이천시	80.5	87.0	충청	천안시	85.8	87.1			도	광양시		81.7		93.0	도	성주군	82.2	96.6			
	안성시	82.4	84.1		남	공주시	86.4				90.8		담양군		80.6		86.0	칠곡군	66.7	59.6		
	여주군	85.1	89.8		도	보령시	96.1				96.9		곡성군		86.9		97.0	예천군	93.8	98.7		
	연천군	81.0	89.6		도	아산시	79.9				86.2		구례군		96.6		96.9	봉화군	96.1	97.9		
	가평군	85.8	88.8		도	서산시	94.0				96.4		고흥군		97.0		99.5	울진군	95.5	99.6		
	양평군	85.2	90.3		도	논산시	84.7				92.2		보성군		89.7		98.6	울릉군	100.0	100.0		
강원	춘천시	96.4	91.9	충청	금산군	82.1	93.6				도		화순군		81.7		78.9	도	창원시	75.0	83.1	
	원주시	94.6	93.3		남	연기군	79.8						82.7		장흥군		95.1		97.5	마산시	77.6	71.1
	강릉시	95.8	93.7		도	부여군	90.2						96.6		강진군		92.6		96.9	진주시	93.0	87.8
	동해시	88.7	90.8		도	서천군	92.8						96.6		해남군		94.9		99.0	진해시	76.9	72.0
	태백시	92.1	96.2		도	청양군	94.6						97.1		영암군		80.8		94.5	통영시	94.8	92.7
	속초시	90.1	88.3		도	홍성군	92.9						97.0		무안군		84.0		94.8	사천시	86.2	89.8
	삼척시	90.5	89.1		도	예산군	94.4						94.5		함평군		88.9		98.6	김해시	66.6	76.0
	홍천군	89.7	98.1		도	태안군	94.5						97.3		영광군		92.4		98.5	밀양시	93.1	94.3
	횡성군	81.5	95.4		도	당진군	94.8						97.2		장성군		82.0		91.6	거제시	93.9	99.2
	영월군	87.9	96.9		도	계룡출장소	92.7						77.2		완도군		96.3		99.7	의령군	92.4	95.0
	평창군	90.1	99.2		도	전주시	91.9						85.1		진도군		98.6		99.5	창녕군	88.4	95.3
	정선군	94.8	97.8		도	군산시	92.9						94.2		신안군		95.9		99.6	고성군	88.5	94.1
	철원군	93.5	94.2		도	익산시	89.7						92.8		포항시		94.5		97.8	남해군	95.9	98.2
	화천군	94.1	97.4		도	정읍시	93.0	94.9				경주시	88.9		90.0		하동군		90.0	95.5		
양구군	97.1	100.0	도	남원시	93.2	95.5	김천시	94.1				90.7	산청군		91.7		95.1					
인제군	95.9	99.4	도	김제시	85.1	90.8	안동시	96.5	95.3			함양군	96.9	98.7								
고성군	90.5	90.9	도	완주군	77.3	77.8	구미시	80.2	96.0			거창군	96.3	98.4								
양양군	87.6	94.0	도	진안군	87.5	98.7	영주시	95.8	94.3	합천군		95.5	98.2									
충청	청주시	90.2	85.7	북	무주군	94.9	98.9	도	영천시	84.9		89.9	제주	제주시	89.9	89.3						
	충주시	95.6	95.3		도	장수군	95.3		98.4	상주시		96.2		97.0	서귀포시	88.8	87.9					
	제천시	93.6	90.9		도	임실군	91.3		91.7	문경시		96.8		93.9	북제주군	85.8	84.0					
	보은군	92.6	98.5		도	순창군	95.1		97.6	군위군		92.4		97.5	남제주군	87.2	91.5					
	옥천군	83.1	90.2		도	고창군	94.0		98.2	의성군		93.1		97.8								
영동군	89.1	95.6	도	부안군	91.2	97.5	청송군	93.1	98.8													

지역에 일자리를 갖는 하나의 폐쇄적인 노동시장(가장 작은 단위의 지역노동시장)으로 볼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제주도의 4개군, 울릉군, 인천광역시의 강화, 옹진군 등 도서지역과 경기도의 평택시, 이천시 등 7곳과 울산 동구지역을 포함하여 131개 지역이 최소단위 노동시장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지역과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지역, 광주지역, 동구를 제외한 울산지역, 평택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을 제외한 경기지역, 충북 청원군, 경상북도의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의 양산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함안군 등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광역시에 속하는 대부분 시/군/구는 이러한 비율을 충족하지 않아 이 단위에서 독립된 노동시장이라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세번째 단계는 지역내 통근유출입 비율 75%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특정 지역으로 통근집중현상을 파악하여 보다 큰 단위의 지역노동시장 존재여부를 변별하는 것이다. 특정지역으로 통근유출입 비율이 높다면 그 지역의 ‘지역노동시장’의 외연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으로 통근유출입 비율이 25%를

<표 2> 시/군/구 단위 지역노동시장이 아닌 지역

광역 시도	시군구	HSC	ESC	광역 시도	시군구	HSC	ESC	광역 시도	시군구	HSC	ESC	광역 시도	시군구	HSC	ESC
서울	광진구	56.5	44.5	인천	중구	30.7	63.6	울산	남구	63.3	74.8	경기	수원시	74.5	65.9
	중랑구	69.8	46.3		동구	37.7	47.4		중구	72.2	44.6		성남시	72.5	51.5
	성북구	60.6	42.9		남구	61.3	57.6		북구	53.9	71.9		의정부시	67.1	48.2
	강북구	66.0	43.3		연수구	69.5	34.1		울주군	65.6	71.8		안양시	56.7	45.7
	도봉구	56.7	33.9		남동구	56.8	56.8		중구	20.7	62.7		부천시	66.7	52.4
	노원구	63.6	36.3		부평구	67.2	53.4		동구	67.3	57.9		광명시	59.1	33.6
	은평구	70.1	46.3		계양구	75.7	48.8		서구	60.4	48.1		동두천시	77.2	70.5
	양천구	58.5	38.5		서구	66.3	63.7		남구	55.0	49.8		안산시	66.8	69.5
	강서구	56.6	48.6		중구	15.6	60.6		수성구	68.9	52.9		고양시	72.0	74.2
	금천구	52.1	46.0		동구	34.1	51.8		달서구	67.5	57.6		구리시	50.7	43.3
	동작구	60.0	41.0		부산진구	51.3	59.0		북구	62.4	64.3		남양주시	71.0	50.0
	관악구	64.9	45.3		강서구	40.9	82.5		달성군	68.5	66.0		오산시	56.7	52.8
	강동구	62.1	45.2		사상구	50.9	59.4		동구	36.6	72.6		시흥시	54.8	50.3
	성동구	46.1	47.1		기장군	70.2	78.2		서구	68.5	54.7		군포시	51.2	31.2
	서대문구	44.8	43.1	서구	50.7	49.4	남구	76.9	52.9	의왕시	43.0	28.3			
	구로구	43.0	44.6	영도구	67.6	51.2	북구	77.5	64.6	하남시	53.1	42.6			
	송파구	52.4	50.7	동래구	48.6	38.4	광산구	67.0	73.1	용인시	58.4	60.2			
	종로구	16.9	59.1	남구	60.6	46.8	유성구	60.2	74.3	과천시	19.4	24.4			
	중구	10.7	60.3	북구	58.2	35.2	서구	78.5	63.3	파주시	69.8	75.8			
	용산구	31.1	50.8	해운대구	68.7	43.0	동구	70.8	68.9	김포시	50.2	69.5			
	동대문구	34.0	56.9	사하구	66.7	61.1	중구	63.2	60.8	양주군	64.4	68.2			
	마포구	45.2	49.9	금정구	53.0	45.6	대덕구	64.4	65.6	화성군	60.7	77.0			
	영등포구	26.1	52.4	연제구	49.3	39.3	양산시	55.2	70.1	광주군	49.6	73.0			
	서초구	27.7	48.2	수영구	58.1	36.8	함안군	69.1	85.7	포천군	68.9	90.4			
	강남구	20.5	59.2	칠곡군	66.7	59.6	마산시	77.6	71.1	청원군	72.2	75.0			
				경산시	67.8	71.1	진해시	76.9	72.0	증평출장소	85.8	73.8			

초과하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먼저 ‘구’지역이 속한 광역시 내 통근유출입 비율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분석단위 지역에서 취업자들이 ‘구’단위에서 거주지 인근지역으로 유출입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구지역이 속한 ‘광역시’ 내에서 복잡한 통근유출입패턴을 보이고 있어 ‘구’단위에서 시작된 지역의 외연은 광역시 전체로 확대된다.

다음으로 도내 통근유출입 비율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분석단위 지역에서 취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인근지역으로 통근유출입패턴을 보이고 있었지만, ‘시·군’지역이 속한 ‘도’ 내로의 유출입 비율이 높게 나타나 통근유출입 비율 25%를 둘다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청북도 청원군의 경우 통근유출의 대부분이 청주시(17.3%)를 향하고 있고, 청주시로부터도 18.34%의 통근유출입을 보이고 있으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최소 통근유출입 비율 25%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경상북도 경산시의 경우 경산시에 대한 통근유출입은 거의 모두 대구에서 유입되고 있으며(유입비율 22.72%), 대구로의 통근유출도 28.5%나 되었다. 또한 경상남도 양산시의 경우도 양산시 거주민의 19.1%가 부산으로 통근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양산에 대한 부산거주자의 통근유출입은 41.1%로 매우 높았다. 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도 김해에 대한 부산으로부터의 통근유출입은 28.38%였으나 김해에서 부산으로의 통근유출입은 17%였다. 경상남도 마산시의 경우도 거주인구의 20.81%가 창원시로 통근유출입이 일어나고 있으나 창원시로부터의 통근유출입은 13.6%에 불과하였다. 이 지역들 역시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최소 통근유출입 비율 25%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단지 부산의 위성도시로서의 기능만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구 단위별 광역시 내 통근유출입 비율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울 산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중 구	96.6	96.8	중 구	93.8	95.5	동 구	89.9	94.0	동 구	91.4	95.1	중 구	96.8	94.0
서 구	94.1	97.8	동 구	89.8	94.0	서 구	89.1	96.2	중 구	90.4	94.7	남 구	97.4	94.2
동 구	94.2	97.4	서 구	93.2	97.7	남 구	87.3	95.3	서 구	89.5	97.3	북 구	94.2	95.2
영도구	94.5	96.9	남 구	93.5	96.0	북 구	90.1	96.1	유성구	90.0	91.9	울주군	95.8	97.1
부산진구	93.0	97.7	북 구	88.7	95.8	광산구	91.1	96.8	대덕구	90.1	93.4			
동래구	88.3	95.8	수성구	86.3	93.5									
남 구	93.4	97.9	달서구	91.2	96.8									
북 구	82.6	92.8	달성군	93.5	98.2									
해운대구	91.2	98.5												
사하구	94.7	96.9												
금정구	85.0	94.2												
강서구	88.6	84.8												
연제구	88.6	96.1												
수영구	93.9	98.3												
사상구	89.5	95.1												
기장군	90.6	96.6												

또 다른 통근유출입 형태는 통근유입 집중과 통근유출 집중현상이 높지만 양자가 불일치하는 양상을 보이는 지역이다. 즉, 일정 지역으로부터 한 지역으로 통근유입이 높은 반면 이 지역 거주자는 통근유입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통근유출이 집중되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경상북도 칠곡군은 대구지역으로부터의 통근유입은 25.74%로 높은 편이나 구미시로 통근유출이 31.3%로 높게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경상남도 진해시도 14.73%가 창원으로, 7.82%가 마산으로 통근유출이 집중되나 창원으로부터의 통근유입은 5.43%, 마산지역으로부터의 통근유입은 2.75%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함안군은 거주자 대부분이 지역내 통근유출입을 보이는 반면, 함안군에 소재하는 사업체에는 마산시와 창원시로부터 각각 8.12%와 16.5% 통근유입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역노동시장으로 통합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노동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노동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어 단일노동시장으로 볼 수 없으며, 그렇다고 다른 노동시장지역으로 통합하기 어렵다.

이상의 지역과는 달리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지역 내에 속하는 '구'단위 지역들이 서울지역 내에서 통근유출입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서울의 경우 특정지역으로 통근유출입이 이루어진다고보다는 서울시 전역에 걸쳐 분산된 통근유출입의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수도권외의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경기 등 인접지역으로부터의 통근유입 및 통근유출이 목격되었다. 광명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군포시, 의왕시 등의 지역에서 서울로의 통근유출 비율이 25%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 시흥시, 양주군, 파주시, 포천군, 김포군 등의 지역도 서울로의 통근유출입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근유입 비율도 25%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들 지역이 서울의 지역노동시장으로 통합되기는 어렵다. 다만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인근 수도권 지역 중 지역노동시장으로 통합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노동통근유출입 비율 25% 이상 초과하는 지역은 과천시, 구리시, 하남시이다. 따라서 서울의 구 단위에서 시작된 '지역'의 외연은 서울전체뿐 아니라 과천, 구리, 하남시까지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표 4 참조).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경기지역 중 동두천시의 경우 지역내 통근유입이 77%로 높은 편이나 서울(7.52%), 의정부시(8.8%), 양주시(8.66%) 등으로 통근유출이 일어나고 있어 서울 및 양주의 위성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고, 화성군의 경우 지역내 통근유출이 77%로 높은 편이나 수원으로부터의 19.28% 통근유입이 일어나 수원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어 서울의 위성도시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서울지역 노동시장의 외연을 더욱 확장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4〉 서울 인근지역의 통근유출입 비율

	서울에서 유입	서울로 유출		서울에서 유입	서울로 유출
부평구	6.47	18.0	군포시	8.88	29.05
계양구	5.04	19.0	의왕시	9.21	25.52
수원시	7.64	9.62	하남시	34.68	44.72
성남시	15.14	35.04	용인시	10.53	19.36
의정부시	19.74	35.19	파주시	11.44	11.20
안양시	12.62	30.98	김포시	19.54	18.89
부천시	11.53	29.63	광주군	13.44	11.92
광명시	22.86	50.79	포천군	12.73	3.02
동두천시	6.03	7.52	양주군	8.38	14.83
고양시	21.21	46.64	화성군	2.68	2.50
과천시	38.54	59.63	시흥시	6.99	15.64
구리시	25.92	37.09	안산시	8.23	9.04
남양주시	15.13	35.03			

주: 동두천시와 화성군은 서울로의 유출입 비율은 낮지만 서울의 위성도시인 의정부시, 용인시, 양주군, 수원시 등의 또 다른 위성도시 역할을 하므로 여기에 포함시켰음.

Ⅲ. 지역노동시장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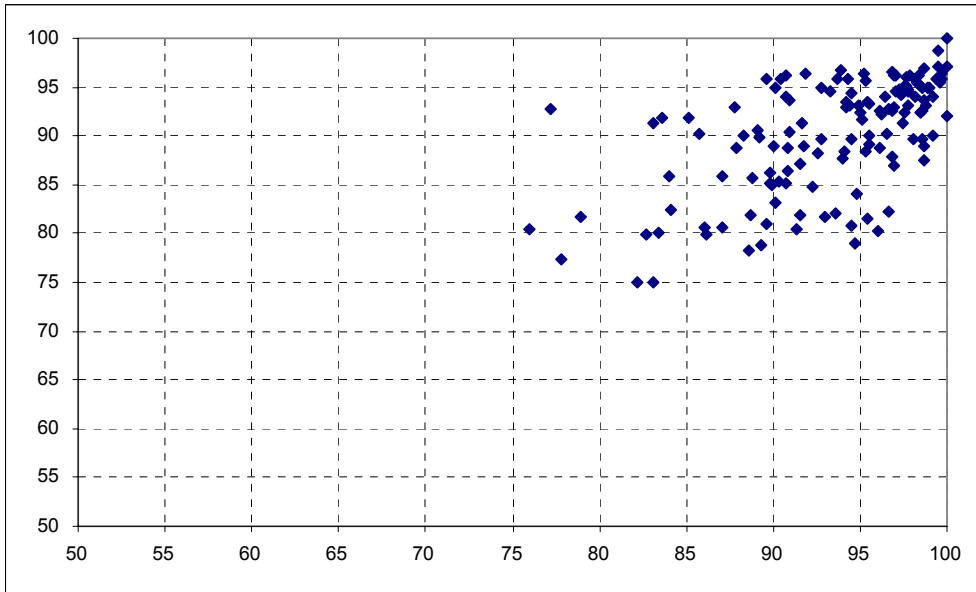
이상의 단계를 거쳐 우리나라의 지역노동시장의 경계를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역노동시장은 <표 5>에서 보듯이 137개로 매우 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표에서 기타 30개 지역의 경우는 좌측의 지역노동시장으로 노동유출이 25% 이상 크게 나타나지만 그 지역으로의 통근유입은 25%를 초과하지 못하는 지역이거나 혹은 좌측의 지역노동시장으로 노동유입이 25% 이상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지역으로의 통근유출은 25%를 초과하지 못하는 지역들이다. 이들은 노동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기보다는 주거지 또는 노동지역의 기능을 할 뿐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노동시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또한 이들 ‘시’ 또는 ‘군’ 지역의 경우 현재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좌측의 지역노동시장으로 통합되지는 못하지만 정주여건의 개선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통근유출입의 비율이 변화하게 되면 향후 좌측의 지역노동시장으로 통합가능할 것이다.

이상에서 설정된 지역노동시장은 그 규모 및 인적구성, 경제활동적인 측면에서 편차가 존재하였다. 지역노동시장의 규모는 행정구역상의 ‘시’를 초월하는 지역노동시장부터 행정구역상 ‘시 또는 군’에 제한되어 있는 지역노동시장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였다. ‘서울’지역 노동시장의 경우는 행정구역상의 서울지역을 벗어나 경기도 과천시, 구리시, 하남시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노동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강원도 양양

〈표 5〉 한국의 지역노동시장

지역노동시장명	개수	지역노동시장 경계	기타 지역: 30개 지역 30	
			노동지역	주거지역
전 체	137			
서울	1	(서울시 과천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포천군, 안산시, 용인시, 양주군, 화성군, 광주군	수원시, 광명시, 성남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안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군포시, 의왕시, 부평구, 계양구, 오산시, 시흥시
인천 1 인천 2 인천 3	3	강화 옹진 부평구, 계양구를 제외한 인천광역시		
부산	1	부산시	양산시, 김해시	
울산 1 울산 2	2	울산 동구 동구를 제외한 울산시		
대구	1	대구시	경산시	칠곡군
대전	1	대전시		
광주	1	광주시		
경기 1~경기 7	7	평택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 1~강원 17	17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충북 1~충북 11	11	양양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청원군	
충남 1~충남 16	16	계룡출장소,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북 1~전북 14	14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1~전남 22	22	목포시, 여주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1~경북 21	21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칠곡군	
경남 1~경남 15	15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진해시, 마산시, 함안군	
제주 1~제주 4	4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그림 1〕 지역노동시장의 통근유출입



군의 지역노동시장의 경우는 행정구역상 ‘군’지역 자체 내에서만 노동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편차는 크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범위의 편차는 특별시, 광역시로의 경제력 집중 그에 따른 노동력 집중현상에 따른 부산물로 보인다.

IV. 요약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노동력 서비스가 거래되는 노동시장의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탐색적 차원에서 지역노동시장 존재여부의 파악과 경계설정을 시도하였다. 취업자 통근유출입 형태를 분석한 결과는 한국에 137개 지역노동시장이 존재하며, 지역노동시장의 규모가 행정구역상의 ‘시’를 초월하는 지역노동시장부터 행정구역상 ‘시 또는 군’에 제한되어 있는 지역노동시장까지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 노동정책이 중앙 단위 또는 행정구역상의 단위에서 실시되는 것보다는 성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지역단위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시론적 분석차원에서 지역노동시장의 경계를 설정하는 본 연구는 방법론상 통근유출입 형태라는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는데 한계를 가지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를 위한 이주결정 등 노동이동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HLI**

<참고문헌>

- OECD(2002), “Disparities in Regional Labour Markets”, *OECD Employment Outlook*,
Lambert Van der Laan & Richard Schalke(2001), “Reality Versus Policy: The Delienation and
Testing of Local Labour Market and Spatial Policy Area”,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9, No.2, pp.201~221.
- J. M. Casado-Diaz(2000), “Local Labour Market Areas in Spain: A Case Study”, *Regional
Studies*, Vol.34.9, pp.843~856.